

리눅스 확대를 위한 공개소프트웨어 기술지원센터의 역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이영재

1. 개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공개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는 공공기관을 필두로 공개소프트웨어를 확산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2005년도 초기만 해도 공개소프트웨어와 리눅스 기반으로 웹서버와 DB를 연동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조차도 그 안정성은 둘째 치고 기술적인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였다. 많은 언론 보도와 경험의 축적 다양한 프로젝트의 성공에 따라 2005년도 말에 와서는 대부분의 공공기관 전산 담당자들은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 제약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기술지원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러한 기술지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4년도부터 공개소프트웨어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공개소프트웨어와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의 솔루션들에 대한 테스트 및 공공 사용자에게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윈도우나 유닉스 환경의 솔루션들이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위에서 실행되도록 포팅하도록 유도하고 개발된 솔루션의 고도화를 돕기 위한 테스트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공개소프트웨어 비즈니스모델의 중심에는 기술지원 서비스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예산을 사용해 민간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기술지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이 기술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익과 인력을 확보하고 Know-How를 습득하며 시장에 원활히 접근해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생긴다면 당연히 민간 기업의 유료화된 서비스화가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술지원센터 구축 초기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직원으로 기술지원센터를 구성해 직접 운영할 것인지 기업들의 컨소시엄을 통해 구축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되었다.

현재 기술지원센터의 구성은 공개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자들로 구성되고 해당 컨소시엄의 인력을 파견 받아 기술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은 다양한 솔루션을 접해 보고 테스트하며 기술지원 체계를 익혀 향후 귀사 했을 때 기존 접했던 기술지원 체계를 자사에 적용하고 다양한 기업의 엔지니어들 간의 협력 통해 공개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지원에 있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전국적 기술지원망을 각 지역의 공개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을 지정하여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기술지원과 함께 공개소프트웨어 비즈니스 활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공개소프트웨어기술지원센터는 공공기관에 대한 공개소프트웨어 사용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지원, 각종 솔루션의 포팅과 성능 고도화 지원 그리고 기업의 기술지원 역량 강화를 통한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의 역할을 목적으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여 왔다.

2. 공개소프트웨어 현황

2.1 리눅스의 역사

표 1은 리눅스가 발전되어 온 과정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1991년 사용자 수 1은 물론 리눅스 토발즈를 의미한다. 10년간 천만명이 사용하는 발전을 거쳐 2001년도에 커널 2.4가 발표되었고 2003년도에 2.6이 발표

표 1 연도별 리눅스 발전

연도	버전	소스 라인 수	사용자 수
1991년	0.01	10,000	1
1992년	0.96	40,000	1,000
1993년	0.99	100,000	20,000
1995년	1.2	250,000	500,000
1997년	2.1	800,000	3,500,000
1998년	2.1.11	1,500,000	7,500,000
1999년	2.2	1,600,000	10,000,000

된다. 1999년도에 레드햇이 기업을 공개한 이후로, 그리고 커널 2.4와 2.6을 발표되어 엔터프라이즈 급의 기업에서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리눅스는 이제 일부 커뮤니티의 매니아나 앞선 기술 수용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리눅스는 표 2와 같이 이제 서버시장에서 윈도우에 이어 두 번째의 OS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세계 클라이언트 및 서버 OS 점유율(2002-2007)
(단위:%)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CAGR	
클라이언트 OS	윈도우	93.8	93.9	93.6	93.2	92.8	92.2	7.1
	맥	2.9	2.6	2.4	2.2	2.0	1.8	-2.2
	리눅스	2.8	3.2	3.8	4.4	5.1	6.0	25.4
	기타	0.5	0.3	0.2	0.2	0.1	0.0	-35.2
서버 OS	윈도우	55.1	58.1	60.1	60.5	60.0	58.8	10.5
	리눅스	23.1	23.9	25.3	27.2	29.5	32.3	16.6
	유닉스	11.0	10.0	8.8	7.7	6.6	5.7	-4.5
	넷웨어	9.9	7.4	5.4	4.3	3.6	2.9	-14.4
	기타	0.9	0.6	0.4	0.3	0.3	0.3	N.A

※ 자료: IDC, 2003

리눅스 커널의 발전과 함께 미국시장에서는 1999년과 2000년도에 리눅스 붐이 형성되었다. 1999년 8월에 Redhat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며 \$53까지 달하는 실적을 올렸다. 1999년 12월에 IPO를 단행한 VA 리눅스의 경우 최대 \$30의 IPO 가격에 대해 \$279에 이르는 10배 가까운 실적을 올려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01년 VA리눅스가 리눅스 사업을 포기할 발표하면서 그 다음날 주가는 \$2.61달러에 이르는 부침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부침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있었다. 1999년말에서 2000년에 이르러 리눅스코리아, 리눅스윈, 와우리눅스, 한컴리눅스 등 많은 리눅스기업과 알짜, 미지, 한컴리눅스, 터보, 액셀 같은 다양한 배포판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폭발하였으며, 리눅스 발표회에는 1000명에 이르는 관객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열기는 미국에서와 같이 오래갈 수 없었다. 리눅스 확산을 지속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했고 시장 확대에 장애가 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해결 되어야만 했다.

2.2 공개소프트웨어 확산의 장애요인

그림 1은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의 저해 요인을 분석한 내용이다.

위의 조사에 의하면 기술지원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 자료는 그 대상이 1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음에 따라 저해요인의 우선순위는 국내의 경우와 다소 다를 수 있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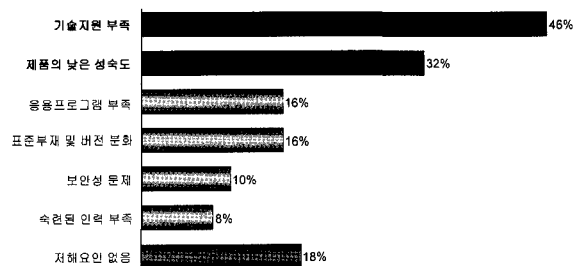


그림 1 리눅스 도입 저해 요인
(출처: Forrester Research (2003. 9.))

도 공개소프트웨어에서 기술지원 부족 문제의 해결 필요성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는 자료가 될 것이다.

제품의 낮은 성능도 또한 공개소프트웨어 확산의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분석되어 있다. 글로벌 기업의 상용 솔루션들은 리눅스를 타겟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리눅스 기반으로 포팅되어 시장을 확산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기업의 규모가 작은 국내 기업 상황에서는 응용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많은 투자를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리눅스 OS를 제품화하고 리눅스 기반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적인 수익성을 본 기고에서 상세히 논할 것은 아니나, 아직 성공적으로 리눅스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서조차 공개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향후의 수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아직 그 규모가 작은 관계로 공개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주 사업자는 대부분 SI 기업이 수주하게 되고 공개소프트웨어 기업은 그 하청 역할을 하고 있다. 리눅스 OS만으로는 수익성이 없고 특화된 솔루션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만 생존을 위한 기업의 존속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기술지원 부족과 제품의 낮은 성능도라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4년 7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내에 10월 공개소프트웨어기술지원센터를 공식 개소하였다.

2.3 레드햇의 기술지원 모델

리눅스 비즈니스에서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레드햇이다. 레드햇은 기술지원을 그 기본적인 서비스로 활용하고 있고 기업의 수익 확보를 위해 그 모델을 참조 할 필요가 있다. Redhat의 서비스 핵심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의 기술지원(주로 온라인 기술지원)과 Redhat 리눅스 OS 제품에 대한 패치서비스(온라인 기술지원의 핵심)가 있다.

주요 특징

- 소스 레벨은 무료이나 바이너리 코드 제공은 서비스에 해당

- 서비스를 판매하며, 소프트웨어패키지는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없고 Upgrade와 패치, 기술지원이 비즈니스 모델)
- Subscription
 - 온라인 기술지원은 무제한
 - 연간 기술지원 서비스 계약
 - RHNetwork 접속 (CD 이미지-구버전 포함 + Up-to-Date버전)
 - 읍서널 24 X 7, On Site, Dedicated technical account Manager
- RedHat 현황
 - 개발자 300명 Support, Sales 엔지니어 포함 500명 총 950명
 - 글로벌 매출 2004년 2억불, 2005년 3.36억불 예상
- 기술지원 현황
 - 7년간 해당 버전 OS 지원, 2.5년간은 신기술을 구 버전에 접목
 - 12~13개월에 신버전 출시, 분기별 Update Patch
 - 초기 신제품 버전을 GA(General Availability) 버전이라 하고 이 버전으로 인증받은 제품이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Patch 제공
 - 2.4 ⇒ 2.6일 때 Backward 호환 라이브러리 제공
 - 본사에서는 On-Line 지원만을 하고 있고 On-Site 요청에 대하여는 교육을 유도
 - 아태 지역만 일부 On-Site 교육을 지원하며 Channel 비즈니스를 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대형 유통망을 이용한 직접 판매
 - 서비스 L1(10분내 처리) L2(1시간내 처리) L1, L2는 총판이 L3은 레드햇만
 - Severity 레벨에 따라 S1(개발자까지 stand-by) S2, S3, S4로 구분

국내 리눅스 기업들과 공개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공개소프트웨어인 리눅스에서 최저 가격은 "0"에 가까워질 수 있음에 따라 해당 리눅스를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지원에서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공개소프트웨어기술지원센터에서는 민간 기업이 이러한 모델을 사업에 연계시킬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리눅스 뿐 아니라 리눅스 상에서 운용되는 다양한 솔루션을 포함해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3. 공개소프트웨어기술지원센터

3.1 중앙 기술지원센터

공개소프트웨어 기술지원센터는 그림 2와 같이 공개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공개S/W기반의 Knowledge Base 구축, 공개소프트웨어 기반 국산소프트웨어산업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4년 10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개소하였다. 첫째 년도인 2004년~2005년말까지는 한글과컴퓨터 컨소시엄에 슈퍼유저코리아, 리눅스원, 케이컴스, NTC코리아, 모아시스 등이 참여 하였고, 2차년도에는 삼성전자 컨소시엄에 엘지엔시스, 아이젯리눅스, 클루닉스, 케이컴스(큐브리드), 와우리눅스, 동해정보통신이 참여해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차년도부터는 공공에 공개소프트웨어 도입 자문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젯리눅스, 리눅스코리아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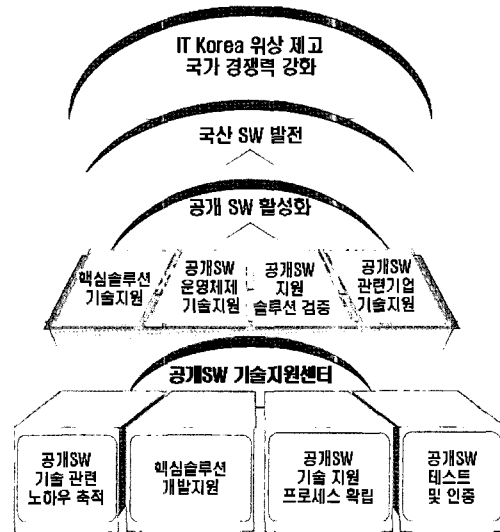


그림 2 공개소프트웨어 기술지원센터 비전

중앙기술지원센터의 우선 기술지원 대상은 공개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사용자에게 대한 기술지원은 1차적으로 제품을 판매한 기업이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협력이 필요한 문제나 제품 고도화를 위한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중앙기술지원센터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한 테스트 지원을 수행한다. 또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HW 기업을 연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공개소프트웨어 기반 솔루션을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공개소프트웨어 Solution Partner 인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이 시장에서 인지도 제고를 돕는다. Solution Partner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GS(Good Software) 인증을 보다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획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기술지원 요청에 대하여는 KMS시스템에 정보를 구축, 저장 하고 해당 내용을 외부의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KMS 안에는 4천여 건의 자료가 등록되고, 리눅스 기반의 기업과 기업의 솔루션을 함께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요시 솔루션별, 기업별로 쉽게 대상을 찾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개소프트웨어 기반 솔루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KMS 시스템은 고객의 요청과 업무 분배, 처리 등의 프로세스를 브라우저상에서 처리토록 시스템화 되어 있으며, 이 프로세스를 따르면 기술지원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민간에 공개소프트웨어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이 이양될 때 해당 시스템을 함께 이양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중앙기술지원센터에는 12명의 서버 OS, 데스크탑, 응용프로그램, HW, 네트워크, 보안 등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를 함께 확보할 수 없는 공개소프트웨어 관련 중소기업으로서는 중앙기술지원센터를 활용함으로써 사업능력을 배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 중 공공기관에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하는 인력2인이 포함되어 직접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시군구 정보화 사업, 기획 예산처 중소기업 공개소프트웨어 도입 방안, 행정정보 DB 구축 사업, 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 뱅킹 등 관련 부처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에 기술적인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공개소프트웨어 확산을 지원 하고 있다.

중앙기술지원센터는 그림 3과 같이 ETRI에서 개발하고 있는 부요 개발에 대한 기술지원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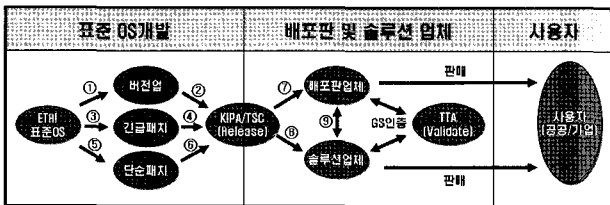


그림 3 OS 기술지원

앞서 RedHat의 기술지원 모델에서처럼 리눅스 OS는 기술지원과 패치 등의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주요한 요소이다. 소프트웨어에 있어 테스트는 많을수록 좋다. 물론 중복되지 않고 잘 관리되고 테스트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중앙기술지원센터에서는 부요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부요 개발팀에 피드백 하며, 개발팀의 패치에 대한 분배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향후는 중요 업데이트 및 패치에 대한 글로벌 커뮤니티 결과의 적용을 위한 테스트 활동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3.2 지역기술지원

공개소프트웨어 기술지원을 위한 체계로 중앙기술지원센터 이외에 지역 기술지원이 있다. 중앙기술지원센터

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지역 기술지원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지역 기술지원센터를 전국의 주요 거점에 직접 만드는 것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기술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의 딜레마를 갖게 했다. 기업의 수익 모델이 기술지원이고 이를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기업 중에서 지역 기술지원을 수행할 기업을 모집한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술지원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기술지원센터는 별도로 구축되지 않았고 지역 기술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해 사용한다. 올해에는 전국의 16개 지역 기술지원 기업들이 선정되었다. 작년의 14개에 이어 30여개의 기업이 지역에서 기술지원 활동을 수행하였다. 컨소시엄 주관사는 리눅스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이 기업들은 전국에 자사의 기술지원 인프라와 제품 판매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1차년도 한글과 컴퓨터, 올해에는 아이젯리눅스가 선정되었다.

제대로된 기술지원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을 통해 운영되는 지역 기술지원 기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전국적인 인프라 확대를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Support Partner를 전국에 걸쳐 모집하게 되었다. Support Partner의 목적은 기본적인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이외에 기술지역 인력을 육성케 하고 공개소프트웨어 확산 협력을 통해 기업 활동 비중을 자연스럽게 공개소프트웨어 분야로 확장시키도록 유도하는 데에도 있다. 현재 34개의 지역 기술지원 기업이 선정된 상태이며 올해 50개까지 그 수를 확대 하고자 한다. 2010년까지 150개의 지역 기술지원 기업 확보를 통하여 정부의 공개소프트웨어정책이 없더라도 기업들의 힘으로 공개소프트웨어 기반 소프트웨어사업에 지장이 없게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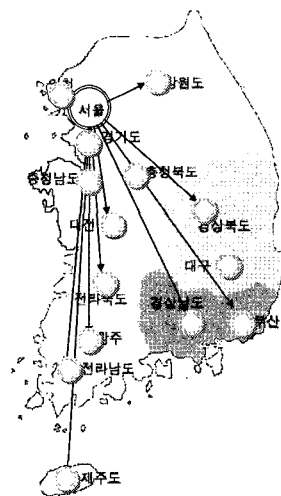


그림 4 지역 기술지원

3.3 데스크탑 기술지원

리눅스 서버의 경우는 글로벌 HW 및 소프트웨어 기업의 활발한 리눅스 개발 참여 그리고 Unix용 응용 프로그램은 리눅스용으로 포팅이 용이 함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높은 완성도를 기반으로 리눅스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데스크탑용 응용프로그램들은 주로 커뮤니티 중심의 공개소프트웨어 개발 모델을 따라 개발되었고 그 종류도 브라우저, 오피스,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PIMS, 보안, 게임, 그래픽, 유틸리티 등 서버에 비해 종류가 훨씬 다양하다. KDE와 Gnome으로 양분된 그래픽 사용자 환경은 공개소프트웨어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개발 기업에게는 응용프로그램을 두 가지 그래픽 환경에서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리눅스 버전마다 다른 필수 라이브러리 버전도 응용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을 주는 장애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공개소프트웨어인 리눅스 데스크탑은 리눅스 배포판 사업자에게 가격 면에서도 큰 장점을 가지기 어렵고 이미 윈도우가 대부분의 데스크탑 OS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비집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PC에서 윈도우 점유율은 99%이고 리눅스 데스크탑의 점유율은 0.3%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작은 기업 규모와 투자 여력으로 기업들이 리눅스 데스크탑에 투자하는 것이 어렵고 윈도우와 같은 완성도를 요구하는 고객의 요구에 많은 개발비가 들어가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렇다고 리눅스 데스크탑의 성공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오픈오피스가 2005년도 10월에 2.0이 발표되면서 그 완성도가 매우 높아졌다. 국내에서는 ThinkFree Office가 출시되어 MS Office와의 파일 호환성 문제와 리눅스에서 사용이 가능해졌다. 커널 2.6이 출시되면서 리눅스 자체의 기능 또한 크게 개선되고, FireFox가 개선되면서 윈도우에서 가능한 많은 기능들을 리눅스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OpenDocument 파일 포맷은 OASIS에서 표준으로 제정하고 ISO를 통해 각국에서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이러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풀과 표준화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증대한다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데스크탑에 대한 기술지원의 문제 발생이나 요청은 크지 않다. 사용자 수가 적기 때문인데, 실제 기술 지원 요청이 증가하는 시점에서는 서버에 비

해 기술지원에 대한 요구가 폭증할 가능성이 많은 분야가 리눅스 데스크탑이라 하겠다. 또한 리눅스 커뮤니티 확산 시점이 바로 데스크탑이 확대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리눅스 데스크탑 기술지원 문제 해결은 기술지원 체계나 인력 확대 이전에 이러한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요인을 해결 할 필요가 있다.

문제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표준화이다. TTA를 통해 리눅스 데스크탑에 대한 표준 스펙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ETRI, 한글과컴퓨터, 아이젯리눅스 등이 참가하여 2005년 12월 단체 표준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두 번째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보다 바람직한 방향은 윈도우가 한 회사 제품으로 일관성을 갖는다는 측면과 같이 리눅스 데스크탑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대해 일관성있는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고 응용프로그램도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해야 한다. 특히 각사의 라이브러리 버전 차이에 따른 설치시 호환성 문제나 사소한 문제 발생 여지를 없애는 것에 기업들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리눅스 데스크탑을 커뮤니티로서 자유정신에 따른 협력의 결과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독창성이나 참여자의 자유의사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도 커뮤니티의 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리눅스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로 리눅스 데스크탑을 활용하는 경우 제품으로서의 리눅스와 응용프로그램은 완성도와 사용상의 친밀도 면에서 커뮤니티의 그것과는 달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커뮤니티에게도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는 “휴지통”이라 번역하고 커뮤니티에서는 “쓰레기통”이라고 번역한 경우 독창성 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상품으로 제품에 적용되기에는 “휴지통”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에게 거부감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기업의 번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기업은 불필요한 재번역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결국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휴지통”으로 번역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결국 목적은 다르지만 리눅스 데스크탑 확산에 주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응용프로그램 개발 회사의 측면에서는 표준화 문제는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다양한 리눅스 OS마다 개발인력을 투입해 포팅을 달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응용프로그램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미세한 중요 라이브러리의 차이로 인해 많은 경우 버그의 원인을 찾고 또는 찾지 못하고 미완성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인력이 작고 영세한

국내 개발사 입장에서는 미완성의 가능성 높아 리눅스 용 응용프로그램은 완성도가 낮다는 오명을 떨쳐버리기 어렵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4. 결 론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업 모델은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레드햇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페도라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예산과 기업의 컨소시엄을 통해 부요 표준을 개발하고 공개소프트웨어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기적인 개발 주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요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중심의 한중일 공개 OS 프로젝트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에 있으며, 기술지원센터는 그 뒤를 굳건히 떠받치는 역할을 수행 하고자 한다. 특히 다양하게 발생하는 데스크탑 기술지원 문제 해결은 한 기업이 감당하기에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표준화가 된 배포판에 대해 여러 회사들이 관련 엔지니어를 공유하는 기술지원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며 그 장을 제공하는 것이 공개소프트웨어기술지원센터이다. 내년도에는 리눅스 데스크탑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서버 중심 기술지원센터를 데스크탑을 강화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할 예정이다. 공개소프트웨어활성화 특히 리눅스 데스크탑 활성화가 멀고도 쉽지 않은 길이지만 공개소프트웨어기술지원센터가 확산의 장애들을 제거해 나가는 지뢰 제거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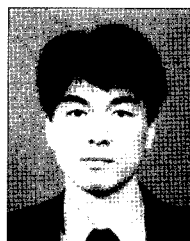
공개소프트웨어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은 언젠가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민간 기업이 대신 해야 할 일이다. 그 시점이 빨리 올 수 있어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 전반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이 커지도록 그리고 관련 OS와 솔루션 기업이 커지도록 공개소프트웨어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강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공개소프트웨어기술지원센터가 갖는 지상 최대의 임무이다.

아직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공개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잘 모르는 솔루션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OSS. OR.KR이나 1544-5092로 전화주기 바란다. 공개소프트웨어와 그 기반의 솔루션 확대를 위해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열정적인 엔지니어들이 기다리고 있다.

참고문헌

- [1] "Revolution OS," Wonderview Productions, 2001
- [2] http://www.oasis-open.org/committees/tc_home.php?wg_abbrev=office
- [3] <http://www.redhat.com/rhel/compare/server/>
- [4] Martin Fink, "리눅스와 오픈소스의 비즈니스와 경제학", p.31, 영진닷컴, 2005.

이 영 재



1989 서강대학교 경제학(학사)
 1989. 8~1990. 10 삼성전자 근무
 1990. 12~1996. 1 마이크로소프트 근무
 1996. 2~2004. 6 신진소프트 대표이사
 2000. 7~2002. 10 한컴리눅스 이사
 2004. 7~현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공개소프트웨어지원센터 기술지원팀 팀장
 E-mail : yjlee@software.or.kr
